



# 2019 | 한올 FALL | 타리

Vol 49 No 3 2019.10.27  
편집: 홍보위원회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한올타리 편집팀 김한나 배광현 이재혁 정유미 정은아 윤경문 목사

세월은 우수처럼...

지난 1월 눈이 많이 내려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아니 또다시 1월이 눈 앞에 보이는듯 하네요. 세월은 우수와 같이 흐른다는 말에 다시금 깊게 공감이 가게 됩니다. 이 공감은 어쩌면 세월의 흐름을 막을수 없는 우리들의 무력함의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월은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 주는 도구일까요? 시편 기자도 비슷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시 90:10)

그런데 이 세상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월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 나와 온 세상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보면서 아담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의 삶의 자취가 이 강들을 통해 온 세상을 적시고 있음을 보았을줄 압니다. 물론 아담은 실패를 하죠. 이에 요한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내립니다. 아담의 실패를 제2의 아담이신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주님의 삶의 자취가 강이 되어서 온 세계 인류 역사를 완성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세월이라는 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취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의 우리들의 삶은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라는 강을 타고 하늘나라로 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예배예술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 예배

7, 8, 9월 주일예배와 토요일 아침기도회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7월 21일 주일에는 뉴멕시코 단기선교 파송예배를 중고등부와 유년주일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드렸습니다.

### 제작임직식

9월 15일 주일에 일곱 분의 제작이 권사(이정희)와 안수집사(강모영, 김미희, 노시일, 박정은, 유진선, 임상

균, 이상 6명)로 임직했습니다. 임직식은 Rev. Bart Kelso (보스턴노회 소속)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과 안수집사 대표 노시일 집사님과 이정희 권사님의 답사를 통해 임직하는 분들의 마음가짐과 결의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참여로 풍성한 축복의 손길이 있는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임직받는 분들은 예배방송을 위한 본당 카메라 구입을 위해 헌물 증정을 해주셨고, 예배 후 전교인이 준비한 오찬으로 함께 식사하며 축하하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 만남사역팀 모임

8월 18일 주일 1:30에 룸 101에서 교인1, 2 위원회, 홍보위원회, 예배예술위원회의 만남사역팀 모임을 가지고, 9월 28일에 있는 쉼마의 밤 발표준비를 위해 의논했습니다. 각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모아 만남사역팀의 동영상 제작하였고 (편집: 최정환 집사), 쉼마의 밤에 복음송으로 새롭게 개사한 '우리의 만남은' (개사: 최현구 집사)과 함께 소개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예배예술위원회 팀별 활동

- 찬양대: 1, 2부 찬양대 연합 야유회 (8월 25일 주일, 1시반, Arsenal Park). NEC 피아노 반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김지은 교우가 7월부터 1부 찬양대 반주자로 임명되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 방송실: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1월의 1부 예배를 위해 이석원 집사님이 봉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 찬양팀: 9월 7일 정광근 집사님 초대로 찬양팀 단합모임을 가졌습니다. 박민재/김민지 가정에서 10월 7일에 특담(새힘)했습니다.
- 예배 슬라이드 준비팀: 이석원 집사, 하은혜 집사의 수고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예배위원들: 1, 2부, 친교실에서의 봉사로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선교  
위원회

보고 김정선 장로

황무지에 피어난 아름다운 나바호 어린이들:

황무지에 피어난 아름다운 나바호 Navajo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다. 보스톤한인교회 뉴멕시코 4차 단기선교 팀 26명이 7월말 한 주 동안 이덕재 선교사님의 Christian Vision Academy 사역을 돕고 왔다. 어

린이 여름성경학교에 Bible Study, 우크렐레 클래스, Art & Craft Class, Dance Class가 있었다. 별도로 Chromebook Computer Class와 나바호 보호구역 안의 수 많은 강아지들을 위한 광견병 예방접종 Rabies Vaccine Clinic을 열었다.

사역지 오호 엔시노 Ojo Encino, 라 하라 La Jara 지역은 뉴멕시코 앨버커키 Albuquerque 공항에서 한 시간 반 북쪽, 6-7천 피트의 고산지역, 물이 귀하고, 바람이 강하고 전 지역이 세이지브러쉬로 덮여 있는 척박한 황무지이다. 나바호 인디안들은 보호구역 안에 길표시도 없고 포장도 안된 길을 따라 널리 퍼져 살고 있어 어린이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VBS에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16인승 밴 한 대, 두대의 대형 SUV를 운행 했는데 밴이 진창에 빠졌을 때는 모두가 흙탕물 속에서 밀었지만 결국은 나바호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바호선교 팀은 Youth Group 12명, Young Adult Group 5명, 4분의 장로, 3분의 권사, 두분 집사님이 참여, 26명이 한 호흡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 준비하는 매일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에서 사역팀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주안에서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 주고 오는 것보다 받아 오는 것이 더 많은 사역이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Navajo Mission Life Center에서 진행되었다. Youth Group이 중심이 되어 선생님들과 함께 Bible Study, 우크렐레 클래스, Art & Craft Class에서 가르치고, 도와주고, 챙겨 주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작년에 이어 20여개의 우크렐레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날 부모님 앞에서 공연, 끝나고 나서는 우크렐레를 나바호 어린이들에게 주고 왔다.

나바호 어린이들에게 크롬북 컴퓨터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광야에서 Wifi를 찾을 수가 없어서 거의 포기하다가, 실험적으로 시도, 5명의 학생으로 뽑아, Youth Group의 5명 volunteer tutors들의 도움을 받아 이틀 동안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학생들은 Chromebook을 일단 선물로 받았고, 김정선 장로가 내주는 숙제 10개를 online으로 마치면 완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왔다. 인터넷 Wifi가 너무 약해서 현지 인터넷 회사를 찾아 업그레이드 계약까지 끝내 줄 수 있어서, 내년에는 쉽게 클래스가 진행될 수 있겠다.



수의과 의사이신 김문소 장로님은 현지 Ojo Encino Chapter House에서 Rabies Clinic을 개설, 청년부 2명의 도움을 받아 트럭에 몇 마리씩 싣고 오는 개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었다. 그후 이틀 동안 Reservation 안을 이덕재 선교사님의 안내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예방 접종, 4일 동안에 준비해간 주사약을 다 끝내서 200 마리의 강아지 목에 Certificate Tag를 달아 주었다.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계시는 Christian Vision Academy CVA안에는 하얀 Chapel과 함께 보라빛 라벤더 농장,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과 채소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었다. 26명의 선교팀은 CVA 숙소에 머물면서, 선교사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음식, 재배하신 채소, 과일을 대접받았다. 매일 이덕재 선교사님의 예배 인도, 또다른 사역자의 간증 집회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셨다. 마지막 금요일 아침에는 모두가 라벤더 농장 일을 돕고, 앨버커키에 있는 Old Town으로 Field Trip, 스페니쉬와 인디언 문화가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유산을 보고 배우고 왔다.

부엌사역 팀 2분, 운전사역에 수고하신 3분, 준비 과정을 도운 4분의 숨은 봉사자, Youth Group 부모님들과 여러 교우님들의 기도와 협조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나바호 사역이 이루어 졌다. 월례 준비 모임에서는 나바호 네이션의 역사와 문화, How to Work with Animals, Understanding American Indian등의 Workshop을 가졌고,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바자, 선교를 돕는 아름다운 모임 (선아모)의 Arts & Craft Exhibit and Sale, 청년부 만두바자, 중고등부 미술품 Sale, 외부 Donation 등 풍성하게 준비된 선교였다.

보호구역은 황무지이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바호 인디언 어린이들은 아름답게 자라고 활기가 있었다. 조금만 도와주면 주님의 Youth Leader로 잘 성장 할텐데... 어린이들의 미소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우리 모두 계속해야겠다.

시내산 김정선 장로의 블로그에서 발췌:  
나바호 인디언에 대한 배경 이야기는 블로그 참조  
<http://blog.koreadaily.com/JasonKimSR/1114096>



PCUSA  
2020  
Calendar

2019~2020년도 미국장로교 총회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동안 총회에서는 각 교회, 노회, 대회, 각 조직에서 모아진 사진들을 엄선하여 12달 달력을 제작하였는데, 본교회에서 제출한 지난해 과테말라 단기선교팀의 사진 한 장이 선정되어 2020년도의 3월 달력의 표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교회의 해외선교팀의 사역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달력은 교인의 활성화, 빈곤과의 싸움, 인종차별의 해체 및 다른 선교사역 등을 초점으로 “Who are the unsung heroes of your congregation?” 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의 모음이었습니다.

<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story/reissuing-the-call-for-photos/>

창립6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영범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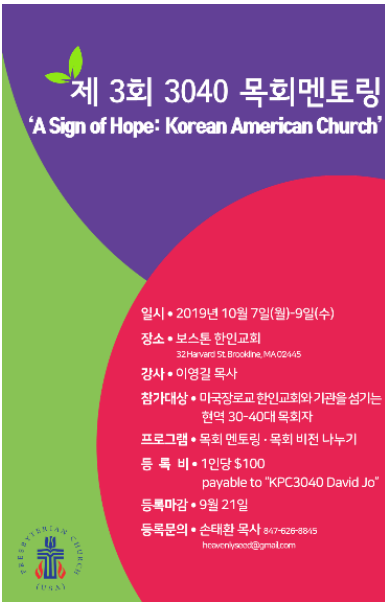
30/40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 초청 (2019. 10.7-9)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30대, 40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17-8(월-수) 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창립 6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위원장: 김영범 장로, 부위원장: 한문수 장로) 저희 교회와NCKPC에

서 후원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30여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목회를 위한 멘토링과 목회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번째 강연에서, 이영길 목사님께서서는 “A Sign of Hope” 라는 주제로 젊은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주는 이민신학과 목회 멘토링에 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둘째날에는 필그림들의 발자취가 담긴 Plymouth Plantation을 견학하고, 보스톤의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밤 늦게까지 목회 비전을 나누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부르심 받은 귀한 사역을 위해 회복과 결단의 시간들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는 3일간의 시간을 30일처럼 알차게 사용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간다는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모두가 이민 교회의 어려움을 말할 때, 희망의 싸인을 전해주시고, 세대간의 단절을 회복하시는 3세대의 하나님을 바라 보게 하신 이영길 멘토 목사님 덕분에 온 교회가 ‘르호봇’을 외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떠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무엇보다 보스턴은 영적인 ‘절벽’이라고 들으셨다면, 이 암벽의 틈에서 66년동안 보스턴 한인교회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가장 큰 충격이자 감격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목사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고백은, ‘지난 3일간 보스턴에서 행복했다’라는 인사였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후원하기 위하여, 김영범 장로님과 한문수 장로님께서 이틀동안 행사에 참여하여 목회자들을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환대의 마음으로 멋진 식사를 위하여, 이성혜 사모님, 김한나 장로님,

노윤경 집사님, 이소은 집사님, 곽서영집사님, 하은혜 집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유택 장로님께서 목회자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하여 주셔서 전달하였습니다.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세심한 배려로 목회자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 행사가 마쳐지기 까지, 30/40 임원진들과 김수영 목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였고, 윤경문 목사님과 이요한 목사님께서도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민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는 30/40 컨퍼런스를 은혜 안에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쉐마행사 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보고 이혜승 집사

6늘 그렇듯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3세대 쉼마 찬양팀의 리드로 시작된 찬양이 9월의 쉼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 조인하신 쉼마 피아니스트 육혜진 집사님의 반주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늘 그렇듯 교회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9월 쉼마의 밤은 교회 사역팀 소개와 홍보가 주제였습니다. 지난 6월 쉼마때 수고해주신 선교사역팀을 제외한 세 사역팀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 팀별로 사역팀 이미지와 딱 들어맞는 홍보스타일로 쉼마를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 “Learning God is a Life-time Journey” - 배움과 교육 사역팀

교육위원회 1, 2, 3부가 속해 있는 배움과 교육 사역팀의 팀 소개는 짧지만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스킷이었습니다. 대사없이 배경음악과 마임만으로 진행된 극은 크리스찬의 평생 숙제인 성경공부, 다음 세대로의 말씀 전달의 사명감과 의무의 중요함을 표현해 냈습니다. 갓난아이에게 읽어주던 성경책은 주일 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 젊은 부부, 중 장년을 거쳐 노년의 부부에 이르기까지 전해지며 성경책을 통해 각 세대의 말씀 공부의 중요성과 평생의 과제, 또 다음 세대로의 말씀 전달의 의미를 잘 표현해 낸 수작이었습니다. 각 그룹들의 특징을 15초내로 훌륭히 살려내며 성경책의 흐름을 잘 전달해낸 스킷을 통해 각자의 생의 위치에서 나를 돌아보고 크리스찬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청년부의 아기역할을 맡았던 김학주 교우의 열연으로 감동과 웃음을 한번에 잡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극의 감동이 가시기 전 곧바로 이어진 황은하 어린이의 “르호봇의 노래”는 채플 전체에 울려 퍼지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또 그녀의 떨림이 세세하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먼트였습니다. 어색한 한국말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며 연습했을 그녀의 정성과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대에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 “섬김의 기쁨” - 섬김 사역팀

기획위원회, 건물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집사회로 이루어진 섬김 사역팀의 홍보전략은 프로의 손길이 물씬 풍기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쉴 새없이 밤낮으로 동분서주 일하시는 섬김 사역팀의 진솔하면서도 간단명료한 발표의 효과는 간간이 흘러나오는 관중들의 “와우, 오우, 와~” 소리가 대변해듯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쉼어하신 집사회 주관 야유회 동영상은 교우님들에 감사와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특히 간간이 등장하여 카메라를 향해 연출된 어색한 웃음을 날려주신 집사님들 덕분에 섬김 사역팀 홍보는 큰 웃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 만남 사역팀

교인위원회, 홍보위원회, 예배위원회가 함께하는 만남 사역팀의 홍보물은 미리 준비해주신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미팅을 거듭하여 탄생된 홍보 동영상은 state of the art의 수작이었습니다. 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으려 하는 각각의 인터뷰 영상은 엄마 미소를 절로 짓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전 가요인 “만남”을 개사하여 완성된 가스펠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로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만남, The Gospel”을 3세대의 사역팀 팀원들이 함께 불러 7080의 추억소환은 물론 우리들 만남을 감사하는 찬양까지 올려 드리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쉽고 간단한 개사 덕분에 중장년층 교우님들도 함께 찬양하는 기회까지 제공하여 모두가 하나됨을 느끼는 감사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Sister Act”에 등장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I will follow him”과 견줄 만한 멋진 공연, 멋진 나눔이었습니다.

지난 쉼마부터 고정코너가 되어버린 ‘온 몸 다해 찬양’순서에는 “Fishers of Men”이라는 아주 쉽고 신나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3개 사역팀의 공연을 보시느라 수고하셨던 모든 교우님이 일어서서 몸도 풀고 요즘 아이들의 찬양도 함께 배우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이영길 목사님의 짧지만 굵은 희망의 메시지, “The sign of Hope”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전해주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진 듯한 민들레 홀씨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죽어가는 듯해 보이지만 결국엔 온 벌판을 민들레 꽃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생명력과 강함을 기억하자는 메시지였는데, 비록 인간의 눈에는 힘든 이민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벌써 실행해 나가고 계시니 우리들 하나하나의 작지만 강한 믿음의 씨앗을 지니고 주변에 하나 둘씩 뿌려 나가면 언젠가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운 쉼마의 밤을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늘 그렇듯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각 사역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끝으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쉼마의 밤이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쉼마 역사의 한 획을 또 스윽- 그으십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쉼마의 밤, 11월 30일 토요일에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사회

회장 김대식 집사  
홍보부장 한세진 집사

9월 1일 주일 아침, 1부 예배를 드린 집사회 몇몇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마지막 준비물인 상추를 씻고 차에 실은 후 Larz Anderson 공원으로 선발대가 출발합니다. 미리 답사하고 몇 개월 전부터 예약했던 Shelter에 짐을 풀고 돌아보니 야유회하기 딱 좋은 장소와 날씨.

일번으로 도착하신 상록회 회원분들께서 쉴 틈도 없이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테이블보를 깔아주시고 바베큐까지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도와주십니다. 곧 차콜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굽고 맛을 보는데... 환상적인 이 맛의 비밀은? 알고 보니 BBQ 도사이신 배광현, 신정옥 집사님께서 질 좋은 소고기를 미리 사서 피를 빼고 맛있는 갈비 양념을 더하신 까닭이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그 많은 고기가 짧은 시간에 동이나 모자랐다는... 그 밖에 소세지, 김치, 그리고 구역별로 준비한 별미를 서로 나누며 모든 분들이 배불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야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인도자를 물색하던 중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저희 교회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수락하셨고 은혜로운 찬양 인도자에서 재치 넘치는 프로그램 진행자로 탈바꿈하신 최현구 집사님은 전교인을 웃음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각 팀마다 삼세대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모든 프로그램에 임해 주셨고 빠듯한 예산이지만 정성으로 준비된 상품을 서로 나누며 야유회를 마치었습니다. 사진에 담긴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밝은 웃음과 즐거움이 넘쳐났고 김대식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사회 임원들은 봉사의 양보다 몇 배로 큰 보람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남선교회장 이유택 장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산다. 필자도 참 바쁘게 사는 편이다. 아니 열심히 산다고 포장하고는 욕심을 부리며 산다고 하는 편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주일 예배와 직분으로 맡은 책임이 중심이 되고, 이에 더하여 세상일을 생각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세상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남는 시간을 내어 맡은 교회 일들을 겨우 처리하면서 살고 있으니 말이다. 몇 년 전 우연히 말

게 된 교회의 총대 (개교회 평신도를 대표해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로 켄터키 루이빌에 위치한 PCUSA의 교단 본부에서 진행된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총회에 참석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함께 참석했던 NKPM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들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바쁘게 사는 삶이고, 또 직장에 관련된 출장이나 세상일 관련된 여행도 자주 하는 편인데, 교회일로 다른 주까지 출장(?)을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위에서 열거한 줄임말들도 그때서야 처음 들은 단어들 이 있을 정도로 신앙 생활은 필자가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활동도 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만도 벽찬 수준이었다.

그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들과 회원들과 만남을 계기로, 샌디에고에서 진행된 NCKPC 전국총회, 그리고 올해 지난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L.A.의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진행된 남선교회 주최 비전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든 약 60여명의 참석자들과 현지 지역 교회에서 참석한 약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하여 진행된 참 은혜로운 행사였다. L.A. 지역의 PCUSA소속 한국교회들이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기에, 지역의 약 여덟 교회가 참석하여 진행된 컨퍼런스는 더욱 의미가 깊었던 것 같다.

주님이 주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스가랴 8:20)의 말씀에 근거하고 “다시 꿈을 꾸자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하에, 말씀과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참 인상 깊은 것이 전국에서 모여든 약 60여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을 일일이 공항에서 픽업하여 컨퍼런스 장소로 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2박 3일간의 맛있고 풍성한 음식과 간식, 그리고 장소를 허락해준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된 봉사자들의 헌신이 단연 돋보이는 컨퍼런스였다.

일상에서의 새벽기도의 참석은 참 부담되는 일이다. 그러나 2박 3일간 외부의 이메일과 전화를 모두 차단해 놓은 상태, 그리고 동부와 서부의 시차로 인한 부담 없는 기상시간이 자연스럽게 필자를 새벽기도로 인도하여 주었다. 운행하는 셔틀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즐길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큼한 새벽 공기도 즐길겸 걸어서 가기로 결심하고 걸으니 필자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한 탓일까 입에서 중얼거리는 찬양이 절로 나온다. 새벽 6시 새벽기도를 위해 거리에 나선 시간이 새벽 5:30분 경인데도 제법 많은 차들이 거리에 나와있다. 한글로 교회 이름을 새긴 교회 봉고들이 간간이 눈에 띄는 것을 보면서, LA의 새벽은 한국 교회들이 깨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첫날 시작된 첫번째 주제강의는 허봉기 목사님이(현 찬양교회 담임 목사) ‘대안공동체’ 라는 주제로 맡아 주셨다. 교회가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기도 하고, 알아도 어려운 중요한 일들은 시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도하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주시듯 잔잔하지만 큰 충격을 전해 주셨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곳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의 질문은 참 의미있는 질문이었다. “보편적 인류는 사랑할 수 있는데, 옆 집에 사는 그놈이 문제야”라는 농담은 웃음만으로 처리하기에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참 아픈 표현이었다.

둘째날 첫번째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특별강의를 맡은 박성주 목사님은 ‘미국장로교, NCKPC, 복음의 빛’이라는 주제로 미국장로교가 우리나라에 헌신하며 장로교역사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파노라마같이 설명하여 주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의 꽃이라 불리우는 워크숍 프로그램에서는 세분의 초청 강사 (포트웨인 한마음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송진우 목사님, 가정교회 목자컨퍼런스 목녀사역전문가인 조선희 성도님, Azusa Pacific University의 교수이신 이은경 교수님)들이 각각 다른 흥미롭고 감동적인 주제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에 진행된 특별강의에서는 올랜도 비전교회의 담임 김인기 목사님이 그 특유의 유머감과 강렬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In it, Not of it’ (세상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다른 믿음생활을 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지며, 1) 섬기기, 2)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그리고 3)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식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나는 그저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실천하는 크리스찬인가?

이어 진행된 허봉기 목사님의 두번째 주제강의에서는 ‘창의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상에서는 잘나가는 제품들이나 회사들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매일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회들은 왜 혁신하려하지 않는가? 라는 우리들의 깊은 곳을 찌르는 아픈 질문을 던지며 시작되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혁신을 시도하였는가? 사실 필자도 경영학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혁신의 중요성을 여기저기 강의하고 다닌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얼마나 새로운 시도를 하며, 바꾸려하는 노력을 하였는지를 돌아켜 보면 참 부끄럽기 한이 없다.

이렇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으로 은혜의 폭포를 경험한후 방에 들어오면 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룸메이트 장로님과의 대화가 기다리고 있다. 피곤할 법한 시간이지만, 처음 만난 분과 2박 3일을 함께 방을 사용하면서, 각자의 역사와 삶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게 된다. 필자가 참석했던 평신도 컨퍼런스의 첫번째 룸메이트는 은춘포 장로님으로,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였고, 그 중 한 남자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입양하여 아들로 삼으셨다. 지난 여름 카톡으로 그 아들이 장성하여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학교 앞 벤치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다. 그냥 나이 들어 여성호르몬이 증가해서인지 아니면, 필자도 오래전에 잠시 머물렀던 그 지역에서 은 장로님이 겪으셨을 어려움이 머릿속에 상상되어서일지 아니면 주님의 섬세하신 계획에 감격해서인지 잘 모르겠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한 뇌연구학자에 의하면, 뇌의 멀티테스킹은 일상에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제대로된 뇌의 저장 장소에 저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복잡한 세상속에서 멀티테스킹을 감당해야 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2박3일간 오직 말씀과 찬양 그리고 나눔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가슴속에 정확한 장소에 저장할 수 있었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상록 기도회

### 회장 이숙재 권사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사랑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7월은 언제나처럼 월말 주일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식사기도를 시작으로 윤현자 집사님이 점심제공을 하였고, 6월에 새로 가입하신 윤원길 장로님의 기도로, 특강으로는 9월에 타주로 이주하신 김중연 장로님의 선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하신 후 몽골대학에서 일년간 영어

로 학생들을 가르친 이야기, 그곳 사람들의 생활 풍습 등. 그 곳에는 물이 너무 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 매사추세츠는 너무 좋은 물이 많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6월에는 새 회원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신동일/신초희, 윤원길/윤만강, 김성환/민병주 여섯 분께서 상록기도회원으로 오셨습니다.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8월은 홍영희 권사님의 기도, 특강으로는 김문소 장로님의 뉴 멕시코 선교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월 4일 주일에는 상록기도회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특별설교 목사님으로는 한국에서 오신 정영택 목사님(예장 통합 중경 총회장)의 설교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10일에는 고 최선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본 교회에서 이영길 목사님의 집도로 거행되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고 셋째 며느님 홍경애 집사님의 부탁으로 상록회원들께서 조가를 부르며 아픔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8월 모임 점심은 고 나시옥 권사님의 따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9월도 바쁜 한달이었습니다. 전교인 야유회, 권사/안수 집사님들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김현지 권사님의 따님인 이정희 권사님이 권사 임직을 받았는데 김현지 권사님께서 3대째 권사직분을 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9월 14일에는 김형범 장로/이계순 권사님의 둘째 아드님 결혼식이 이영길 목사님의 주례로 본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9월 모임의 점심식사 제공은 정명상 집사/강영숙 권사님이 제공하셨고, 특강으로는 김경애 권사님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간단한 운동, 기기 사용법을 시범을 보이시며 수고해 주셨고, 김현지 권사님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상록기도회원분들에게 점심제공을 해 주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어 기도 열심히 해주시는 회원과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아픈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 내려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권사회

회장 김영미 권사

가을이 성큼 다가와 벌써 드높고 아름다운 단풍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에 저절로 감탄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권사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로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2일에는 나시옥 권사님 추모예배를 다녀오셨고 7월 14일에는 뉴멕시코 단기 선교단에 선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월 17일에는 최선경 권사님의 친국 환송예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여러 권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9월 15일 임직식에서는 이정희 권사님께서 권사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자격이 되시는 많은 집사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29일에는 청년 1.2부, 중고등부를 위하여 짜장밥을 대접했습니다. 여러 권사님들의 수고와 donation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찬식을 위해 성찬기를 닦으며 정성을 담아 즐겁게 일하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든 권사회 회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행사도 주님의 뜻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 정은아 집사

교회 행사 달력의 마지막 분기, 가장 중요한 행사는 교회를 위해 섬길 분들을 임직하는 날이라는걸 우리 교회에서 오랜 해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몇 해만 다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려면...전교인이 비빔밥을 먹을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비빔밥을 바로 에스더 여선교회에서 전교인의 힘을 함께 모아서 만드는 일을 담당합니다. 에스더 사역의 끝이며 꽃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전부터 각 구역과 부서별로 비빔밥 재료들을 나누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직식 당일에는 각 구역과 부서에

서 준비해주신 재료들을 부역의 정가운데 모아 비빔밥용 컨테이너에 가지런히 담는 일명 '비빔밥 조립'을 합니다. 평소에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셨던 에스더 회원들도 이 날은 명절처럼 부역 한가득 모여 주십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청년부 자매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열심히 조립해 주셨답니다.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을 것이기에 아기 엄마들의 도움은 더더욱 귀하합니다.)

500개 비빔밥을 만들어 400개 이상의 비빔밥으로 만찬이 되었고 예배 후 스케줄로 식탁에 함께 앉기가 힘든 교우님들께 나누어 드렸더니...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교회의 온식구가 임직식을 축하하고 만찬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임직을 받으신 집사님들^^ 부역에서 온 마음을 비빔밥에 담아내며 축하, 축복을 드리는 에스더 여선교회 회원들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제 큰 행사는 끝났지만...다음 해 일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 잘 섬길 에스더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분들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땡스기빙까지 교우님들 모두 감사한 일들 더 더욱 많이 돌아보시기를요~

##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궤서영 집사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반성이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보다는 어느덧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닌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의 행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도 고쳐 낮게 하시고,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도 내쫓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십자가의 의무를 지셨습니다. 신앙 생활은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닌, 의무라고 이영길 목사님께서 토요 아침 예배에서 전하신 말씀이

1. 6월 30일에는 국내 선교 사역의 하나인 쉐터 음식 봉사를 위해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Boston rescue mission으로 김동숙 집사님과 함께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다녀왔습니다.
2. 계속해서 기도모임을 매달 둘째 주 목요일과 마지막 주 화요일, 7시 반에 팔러에서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서 많이들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열려 있으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3. 마리아의 예산으로 커피 팻과 티 팻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4. 10월 7일 월요일: 30/40 NCKPC 한인 목회자 Conference  
이성혜 사모님과 김한나 장로님의 주관하에 노윤경 집사님과 이소은 집사님이 상차림과 다과 준비, 서빙, 설거지 등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10월 10일 목요일: 기도모임
6. 10월 19일 토요일: 전교인 가을 대청소  
이번에는 마리아 여선교회가 부역 청소를 맡습니다.  
많이들 오시고 합심하여 도우면 깨끗하고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7. 10월 20일 주일: 청년 1,2부 및 중고등부 점심 대접  
마리아에서 직접 그리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메뉴는 콩나물 밥과 달걀국입니다.
8. 10월 29일 화요일: 기도모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회장 이유택 장로

남선교회는 작년 12월 새로운 임원진인 회장 이유택 장로, 부회장 이정규 장로, 회계 정재원 집사, 서기 이지훈 집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첫번째 남선교회 모임을 1월에 진행하여 약 20명이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새해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간단한 저녁

식사와,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1)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안관련 세미나와 2) 중년 남성의 건강 세미나 두가지 행사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동전화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 보안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 박사이신 정재원 집사님께서 간단한 몇 가지만 신경을 쓰더라도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주어서 참 유용한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중년남성 건강과 관련된 세미나는 최정원 집사님께서 잘 정리된 발표자료를 가지고, 역사적인 문헌까지 찾으셔서 남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남성들만이 참여한 세미나이어서인지 더욱 남성관련한(?) 내용들을 집중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셔서 참 큰 공감을 얻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진행된 회의에서는 남선교회의 새로운 사업으로 NCKPC의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 (NKPM)에서 지금까지 약 30년간 진행해 온 한국기독교학생 미국 방문단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PCUSA 산하의 한국 교회들의 기독교학생들이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대표적인 장로교회, 사적지, 그리고 산업시찰 등을 통해 미래의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동일하게 한국의 기독교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년동안 보스턴 방문을 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앞으로는 남선교회에서 협력하여 보스턴 방문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 4일 진행된 교회 대 청소에 많은 남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르호봇 연못 주변의 청소, 교회 곳곳의 물청소, 그리고 교회 외부에서 예배당의 예수님 모습이 그려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추는 조명장치를 고치는 등 다양한 봉사로 대청소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와 일정이 겹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회에서 양보해 주셔서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대청소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또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범이 되는 집사회와 회장님께 지면을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월 18일 선교를 위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날씨 관계로 행사의 날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항상 참여하시는 기존의 멤버들 외에도 외부의 손님들, 그리고 새로운 교우님들도 참여하여 참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쌀, 라면, 휴지 등등 다양한 상품을 받으셨고,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건강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일 경기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에 많은 분들이 donation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더욱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을 맞이하기 전, 미래의 리더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모으기 위한 남선교회 주최 가을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5일 Braintree 골프장에서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안전과 경기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봄 골프대회에 이어서 또 한번의 대회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김준구 집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새로이 예약을 잡아서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13명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적었지만, 경기장의 열기는 참여 선수들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뜨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련해온 김밥과 또 경기후 따듯한 베트남 식당에서의 베트남 국수는 이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이번 가을 경기에도 비록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을 통해서 장학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신 것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출범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중반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드는 것을 보니, 참 시간의 빠름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각자의 생활속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맡은 다양한 봉사에 더하여 남선교회를 섬기며 봉사해주는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주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에 남선교회가 교회의 든든한 허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 봉사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  
청년부**

회장 신준섭/박예리 집사

안녕하세요! 부부청년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부청년부에서는 참으로 바쁘지만, 은혜 가득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6월 중순엔 부부청년부 수련회가 ‘두려움 없는 사랑, 친밀감 가득한 부부의 행복찾기’ 라는 주제로 뉴햄프셔 필그림 파인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강사

로는 워싱턴에서 부부상담사역을 하시는 김진세 목사님께서 삼일간 말씀 전해주시며 수고해주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러하겠지만, 신혼부부부터 아직 아이가 어린 가정들이 모여있는 부부청년부에겐 부부간의 관계의 돈독함을 통해 그 가족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에, 참석하신 가정들이 적극적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시며, 실제 가정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수련회의 밤 시간을 통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평소에 깊이 알지 못했던 지체들에 대해서 알아가며 중보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전후하여, 부부청년부로 오시게 된 많은 새로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학업, 직장, 혹은 연수 등 다양한 이유로 이곳 보스턴 지역에 오신 분들께 부부청년부가 따뜻한 이웃으로,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함께 교제하던 몇몇 가정들이 한국으로 귀국, 혹은 타주로 이주를 하게 되어 환송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언제나 헤어짐은 익숙해지기 어렵고 많은 아쉬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가정에게 인도하실 길이 가장 선하신 길임을 믿으며, 비록 몸은 떨어져있지만 기도로 서로 응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해도 여호와 너씨의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청년부 공동체를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께서 부부청년부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하는 열정과 갈망이 생겨나며,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기를 소망하는 가정들이 늘어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기도의 삼겹줄로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 2부

담당 교역자  
윤경문 목사  
김수영 목사

청년 2부는 올해 청년 2부 표어로, “One Body In Christ”(에베소서 4:15-16)로 정하고 회장단과 임원들, 그리고 성경공부 리더들이 교역자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10월 13일, 청년 1, 2부가 함께 젊은 날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라! 그들에게”라는 헌금송을 신나게 찬양

하면서 온 교우들과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였습니다.

청년 2부는 금요 예배 때 보다 자주 청년 1부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청년 1부와 협의하여, 앞으로 2달에 한번 정도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성경공부 시간에는 여름부터 현재까지 성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성경 개괄을 하였고, 9월에는 새교우 환영회를 가지며 새로 청년 2부 공동체에 join한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였습니다. 10월 6일(주일)에는 정의 평화 환경주일을 맞아, 보스턴 노회의 Young Adults Volunteer Program을 맡고 있는 Director(Sarah D.)를 초청하며, “Food Justice & Faith”란 주제를 성서안에서 찾아보며 청년들이 정의, 환경에 관한 awareness를 갖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0월 20일(주일)에는 새교우들과 함께 가을 단풍 구경(Walden pond)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늘 사랑의 마음과 정성으로 점심을 제공하여 주시는 교우님들과 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 2부 한문수 장로님, 구용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탁구 동우회

교인2부 위원장 안성완 장로  
탁구 동우회장 권복태 장로

### 1. 목요 탁구동우회 모임

매주 목요일 밤 7시30분에 친교실에서 가지는 목요 탁구모임은 금년에도 성황을 이루어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치진으로 남수용 집사님, 김충식 집사님 그리고 지난 2년간 챔피언인양원재 형제가 각 그룹별로 열심히 가르치므로 모두의 기량이 현저히 늘어나, 금년 교회 탁구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4월에 탁구대 한 대와 Robot Machine 1대를 새로 구입하여 탁구대는 5대, 그리고 Machine 은 2대가 되었으나 수시로 풀 가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참석에 열기를 띠고, 금년 여름도 모두들 비지땀을 흘리며 건강히 잘 이겨 내었습니다.

탁구 연습뿐 만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식탁공동체도 자주 만들어, 지난 연말에는 연말파티를, 8월 초에는 김봉성 집사님 송별연을, 9월12일에는 추석 모임을 가지며 교제를 나누었고 거의 연중 무휴로 목요일 연습 모임을 가지며 회원들이 준비한 다과와 함께 서로의 믿음도 나눕니다. 탁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환영합니다.

2.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탁구교실 금년 VBS 기간 중 탁구교실은 6월24, 25 일 이틀 동안 열렸으며 전년처럼 약 6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탁구의 기초를 전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힘차게 구령을 부치며 탁구를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무척 좋았고, 참가 어린이 전원에게 ball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선물하였습니다. 몇년 후 이들 중에서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기를 기도하며 내년의 VBS를 기다립니다.

3. 창립 66주년 기념 제 7회 전교인 탁구대회: 오는 10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 제7회 전교인 탁구대회가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해에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복식경기가 특별히 인기있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삼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본 교회의 목적과 합하여 아름다운 놀이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교인들의 도움으로 푸짐한 상품과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도 게시판에 있는 참가신청서에 sign up해 주십시오.

금년도 경기 종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복식(혼성조 포함), 중고등 및 청년부, Sunflower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Sunflower 복식 등 모두 6 종목입니다.

### 4. 회원 동정

가. 구현우 전도사님은 지난 5월말 부로 중고등부 교역을 사임하시고, 새 임지로 떠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탁구공처럼 작은 모습으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고, 또 기도드립니다.

나. 지난 8월 말 김봉성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셨고, 9월 초 신순균 집사님 가정이 CA 로 이주하셨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시기 기도합니다.

다. 이정희 집사님께서 지난 9월15일 권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더욱 섬김의 본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 지난 9월2일 N.Y의 Westchester에서 있었던 NY 대한 체육회 탁구대회에서 남수용 집사님이 해당 Division 우승을, 권복태 장로가 해당 Division 준우승을 차지 하였습니다.



**김종웅/서영연** 가정은 김종웅 교우의 MBA과정 때문에 보스턴 지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주원(6)과 승원(4)을 신앙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부부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원근/박인아** 가정은 최근 이원근 교우께서 보스턴 지역에서 펠로우 과정으로 함께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뉴올리언스에서 거주하셨고,

**정경주** 교우는 어린시절부터 교회에서 성장하였고, 미국생활을 한지 34년이 되었습니다. 마취 간호사로 일하셨고 현재 Lynnfield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1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북동구역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승직/송민음** 가정은 두 분 모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셨습니다. 이승직 교우께서는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현재 내과의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두분 사이에 아들 Liam (2)이 있으며 부부청년부에 소속되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박종극/정지영** 가정은 두 달여 전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던 박종극 교우님께서 보스턴에 안식년차 오시게 되어 1년간 가족이 함께 오시게 되었습니다. 박종극 교우께서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따라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조금씩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3 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정혜진** 두 교수께서는 보스턴 지역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김대현 교수께서는 Beth Israel 병원에서 10년째 근무중이시고, 정혜진 교수께서는 필라델피아에서 수련을 마치고 2014년에 보스턴으로 오셨고, 현재 보스턴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레지던트 시절 교수의 인도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현재 중4구역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강현기/임진희** 가정은 아칸소에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양육환경을 찾아 보스턴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강현기 교수님께서서는 모태신앙으로 크셨고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임진희 교수께서는 2017년에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 아들 진우 (5), 민우 (3)와 함께 부부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정문영** 가정은 일리노이에서 거주하시다가 두 달 전에 두 분이 함께 보스턴 지역에 취업이 되어 이주하셨습니다. 김경섭 교수께서는 불교 집안에서 성장하셨으나 일리노이에서 학위과정 중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문영 교우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중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청년 시절부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부청년부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환희** 교우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셨고 현재 5살 아들과 함께 다운타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곳 보스턴에서 이민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보스톤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나누고 싶은 모습



뉴멕시코 국내선교-우크렐레 클래스



뉴멕시코 국내선교-Rabies Clinic



뉴멕시코 국내선교-중고등부 학생 단원



전교인 야유회



쉐마의 밤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http://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